2.오픈소스의 역사

1 최초개발

"오픈 소스"레이블은 1998 년 2 월 3 일 캘리포니아 주 팔로 알토에서 개최 된 전략 회의에서 넷스케이프 소스 코드 발표 직후에 만들어졌습니다. 전략 세션은 넷스케이프 발표문에 대한 관심이 열려있는 개발 프로세스의 우수성을 교육하고 옹호 할 수있는 기회를 만들어 냈다는 것을 깨닫고 성장했습니다.

회의 참석자들은 Netscape가 코드를 공개하도록 동기를 부여한 실용적인 비즈니스 사례가 잠재적 인 소프트웨어 사용자 및 개발자와 소통하고 참여한 커뮤니티에 참여함으로써 소스 코드를 작성하고 개선 할 수있는 방법을 제시했다고 믿었습니다. 회의 참석자들은 또한 이 접근법을 확인하고 철학적 및 정치적으로 초점을 맞춘 레이블 인 "자유 소프트웨어"와 구별되는 단일 레이블을 갖는 것이 유용 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. 이 새로운 레이블에 대한 브레인스토밍은 원래 Christine Peterson이 제안한 "오픈 소스"라는 용어에 수렴했습니다.

Palo Alto 회의 (Eric Raymond와 Michael Tiemann) 참석자 중 2 명은 나중에 OSI의 회장직을 맡았고 다른 참석자들 (Todd Anderson, Jon "maddog"Hall, Larry Augustin, Sam Ockman 등)이 조직.

이 용어의 채택은 리누스 토발즈 (Linus Torvalds)와 같은 공동체의 인물과 센드 메일, 펄, 파이썬, 아파치 및 대리인의 창립자를 포함한 많은 주요 개인이 참석 한 1998 년 4 월 자유 소프트웨어 정상 회의에서 조기 지원을 받아 신속하게 이루어졌습니다. IETF 및 인터넷 소프트웨어 컨소시엄.

1984년 리차드 스톨만이 자유 소프트웨어 재단과 GNU(그누) 프로젝트를 시작하면서부터 누구나 자유롭게 "실행, 복사, 수정, 배포"할 수 있고, 누구도 그런 권리를 제한하면 안 된다는 사용 허가권(License) 아래 소프트웨어를 배포한다

1985년 자유소프트웨어재단(FSF) 창설

1998년 오픈소스 용어 만들어짐.

2.발전계기

3 현재 상황 및 성과

2016년 공개SW 시장은 전년대비 13.6% 상승하여 약 1,602억 원을 기록

국내 공개SW 시장은 2015년부터 2020년도까지 6년간 약 2배 성장할 것으로 전망함

국내 공개SW 시장은 2015년부터 2020년도까지 6년간 연평균 성장률(CAGR) 15.2%로 2020년에는 2,862억원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

클라우드, 빅데이터 등 신시장에서 공개SW 활용이 확대되면서 공개SW 활용도는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음

공개SW 시장을 SW와 서비스 부분으로 나누면, 2017년에는 SW시장이 약 700억원, 서비스 시장은 약 1,134억원으로 추정

공개SW 기반의 서비스가 다양해지고, 최신 기술 기반의 시스템 구축 투자 비중이 확대되면서 서비스 시장의 성장률이 SW 시장의 성장률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음

2014 [공개SW로 만든 국민 모바일 메신저 ‘카카오톡’](http://www.oss.kr/517682)

2012 [제이쿼리 모바일 적용한 모바일 웹앱으로 스마트 캠퍼스 실현](http://www.oss.kr/71135) – 한양대학교